■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38〉

유사무공(有死無功)

죽을 일은 있을지언정 공로 세울 일은 없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한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그에 속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합하여 그 나라를 지킨다는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주도하는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이다. 지도자가 정책을 세우고 많은 국민들은 그 정책이 실현되면 나에게도 이롭고 나라 전체에도 이롭다고 판단한다면 모두 그 정책을 실천하려고 합심하여 노력하게 되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그 반대라면 그 정책은 폐기되거나 엄청난 부작용을 만나서 지도자와 국민이 모두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자들이 자기의 정책을 국민 앞에 선보이고 있다. 이들 정책이 정말로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 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면 어찌할까하는 노파심에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속자치통감에 서술된 요금(遼金)의 교체시기에서 금(金)을 막으려는 요(遼)의 정책(政策)이다. 요는 금(金)을 막는 정책을 내 놓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군대가 무너졌던 것이다.

요(遼)는 거란족(契丹族)의 영웅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건국한 이후로 당말오대(唐末五代) 시기부터 중원지역을 간섭하며 당당하게 송(宋)으로부터 매년 세폐(歲幣)를 30만씩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서하(西夏)와 고려(高麗)로부터 조공(朝貢)을 받으면서 동북아시아의 최고 강자였고, 국제적 중심국가로 군림하였다.

그 영역도 서쪽으로는 알타이산맥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한반도의 평안도 함경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사냥을 생업으로 하였던 거란족이 세운 요의 군대는 상무정신(尚武精神)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두만강과 흑룡강 유역에 살던 여진족, 그 가운데 생여진(生女眞)도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는데, 특히 그곳에서 나는 해동청(海東靑)이라는 사나운 매는 사냥에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그들 세력 범위에 있는 여진족이 사는 지역으로부터 이를 조공 받고 있었다.

그리고 2백여 년이 흐른 시점에 요의 황제인 천조제(天祚帝)는 여전히 전통적 풍속에 따라서 사냥을 무척 즐겼다. 그러나 이때에 하는 사냥은 생업으로서도 아니고 상무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도 아닌 그저 오락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오락을 위하여 요의 관리는 생여진 지역으로 가서 해동청을 구하였는데, 해동청을 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관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행패를 부리고 착취를 일삼았다.

생여진(生女眞)은 여진족 가운데서도 말 그대로 요(遼)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숙여진(熟女眞)과 다르게 독자성이 강하였다. 이러한 생여진에서는 요의 횡포에 더 참을 수 없었던 그 수령 완안아고달(完顏阿古達)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종족을 지휘하여 요를 공격하였다.

참을 만큼 참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영역이나 세력으로 비교한다면 생여진은 요의 1백분의 1, 혹 1천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세력이었다. 군사도 1만 명을 넘지 않았으니 겉보기에는 달걀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요의 착취를 참을 수 없어서 요를 치자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생여진의 군대는 1당 백의 용기로 요군(遼軍)과 싸워서 녕강주(寧江州, 吉林省 扶餘市)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요의 조정에 전해졌다. 천조제는 당시 요의 사공(司空)인 소사선(蕭嗣先)을 동북로도통(東北路都統)으로 삼아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생여진을 진압하게 하였다.

그까짓 작은 생여진 세력이야 간단히 제압할 거라는 생각이었는지 천조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사냥놀이를 하였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세력이라고 하여도 최고 정책결정자인 황제가 사냥놀이에 빠졌으니 싸우는 사람 따로, 노는 사람 따로인 셈이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온 나라가 함께 싸움에 집중하겠는가? 이미 요에서는 황제부터 요를 지킬 컨센서스는 없었다.

하여간 요(遼)의 도통(都統)인 소사선(蕭嗣先) 등이 보병(步兵)과 기병(騎兵)의 제군(諸軍)을 거느리고 생여진을 치려고 압자하(鴨子河, 松花江, 混同江)의 북쪽에 모였는데, 생여진의 아고달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막았다. 두 군대가 처음 접전(接戰)에서 싸울 의지를 갖지 못한 요군(遼軍)은 전군(前軍)이 한번 패배하자 걷잡을 수 없는 패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죽거나 붙잡힌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다. 특별히 싸워야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군사들이 제각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했기 때문이었다.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요군을 지휘한 소서선은 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였다. 이때에 그의 동생은 요의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추밀(樞密)이었다. 그래서 형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천조제에게 건의하였다. "동정(東征)하다가 무너진 군사들이 이르는 곳에서 겁략(劫掠)하는데 만약에 사면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모여서 걱정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패배한 군사들을 사면해 주지 않으면 이들이 반란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보고를 들은 천조제는 겁이 나서 이 말을 좇았고, 가장 책임이 큰 소사선도 면직되는 것으로 끝냈다.

이로써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다 져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결정된 것이다. 겉으로는 군사들이 반발할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속마음은 자기 친속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데서 출발 것이다. 국가 전체의 일을 한 개인의 이해관계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하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야 아고달의 생여진은 겨우 군사 1만명을 채울 수 있었는데, 요군(遼軍) 사이에서는 생여진은 군사가 1만 명만 되면 당할 수 없다는 유언비어(流言蜚語)까지 나돌았다. 이에 더욱 겁을 먹은 나머지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였다. "싸운다면 죽음은 있겠지만 공로를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고, 물러난다면 삶은 있겠지만 처벌 받는 일을 없다." 이처럼 요의 병사들은 싸우는 것보다 물러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으니 적을 보기만 하면 싸우지도 않고 미리 도망갔다.

한번 잘 못된 정책의 결정이 현장에서는 요군을 무력하게 만든 것이다. 후에 천조제는 새로 군사를 모집하고 스스로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지만 그 또한 한번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다. 혹 요금(遼金)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일이 있다 하여도 요군이 패배하는 것을 본 그 이웃 지역에서는 자기나라 군대인 요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스스로 우루루 금(金)으로 귀부하였다. 요는 이로부터 10년이 안되어 멸망한다. 한 순간에 결정한 잘 못된 정책이 나라를 무너트린 것이었다.

내년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근래에 극심한 갈라치기, 패거리싸움을 보면 그들이 내거는 정책이란 것이 혹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와 자기 패거리를 위한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요의 실패를 거울삼아 제발 국민적 컨세서스를 가진 정책을 내 놓은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갈라치기를 그만두고 국민적 화합을 이루어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기적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멸종위기 나무를 살리는 [책다시숲]

참여자 명단 중 자랑스런 권문의 후예들

백두대간 봉화에 책을 주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교보문고가 서적 구입자들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 그 중 권씨 명단을 추려보았다. 이들은 장차 권문의 문학을 이끌어갈 인재풀이기도 하고 이들의 노력에 대종회는 자그만 기억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권가람 권가연 권가영 권가은 권가을 권가인 권가현 권갑선 권강민 권강혁 권건우 권결 권경국 권경남 권경락 권경록 권경림 권경민 권경백 권경빈 권경수 권경숙 권경순 권경아 권경은 권경하 권경혜 권경홍 권경화 권경희 권계순 권광빈 권광연 권교원 권구웅 권규리 권기덕 권기동 권기록 권기복 권기분 권기상 권기석 권기선 권기성 권기수 권기숙 권기열 권기영 권기완 권기우 권기웅 권기은 권기일 권기정 권기준 권기철 권기향 권기헌 권기현 권기형 권기호권기화 권나영 권나윤 권나은 권나정 권나현 권나희 권난슬 권난영 권남경 권남도 권남수 권남영 권남용 권남철 권남희 권내언 권내영 권누리 권다솜 권다연 권다영 권다원 권다은 권다혜 권단 권단아 권대경 권대기 권대성 권대안 권대우 권대웅 권대헌권덕기권덕환권덕희권도경권도균 권도언 권도연 권도엽 권도철 권도현 권도형 권도훈 권도희 권동근 권동성 권동열 권동진 권동현 권동훈 권동희 권득윤 권라영 권라임 권란영 권로희 권리안 권명 권명미 권명숙 권명순 권명주 권명준 권명진 권명훈 권명희 권묘진 권무근 권문경 권문홍 권미 권미경 권미나 권미라 권미래 권미령 권미례 권미림 권미미 권미선 권미섭 권미솔 권미숙 권미순 권미애 권미영 권미옥 권미은 권미정 권미진 권미하 권미희 권민경 권민서 권민석 권민선 권민성 권민수 권민아 권민재 권민정 권민주 권민준 권민지 권민혁 권민희 권반야 권범 권범석 권범주권벼리 권병섭 권병우 권병조 권병준 권병철 권병하 권보경 권보람 권보배 권보선 권보영 권보현 권복례 권복희 권봉갑 권부환 권분희 권빈 권산 권상명 권상미 권상민 권상옥 권상욱 권상원 권상인 권상희 권새미 권서기 권서연 권서영 권서하 권서희 권석 권석란 권석민 권석용 권석진 권석현 권선경 권선미 권선숙 권선아 권선연 권선영 권선옥 권선진 권선화 권선희 권설화 권성경 권성규 권성기 권성길 권성목 권성민 권성신 권성심 권성아 권성우 권성은 권성자 권성재 권성준 권성택 권성하 권성혁 권성현 권성혜 권성희 권세라 권세랑 권세리 권세린 권세실 권세연 권세영 권세은 권세정 권세혁 권세현 권세호 권세황 권세희 권소라 권소연 권소영 권소윤 권소현 권송주 권수경 권수나 권수량 권수민 권수빈 권수영 권수정 권수진 권수현 권수형 권수희 권숙경 권숙현 권순 권순건 권순규 권순기 권순길 권순남 권순덕 권순문 권순민 권순백 권순범 권순애 권순영 권순우 권순욱 권순원 권순일 권순재 권순정 권순천 권순철 권순태 권순택 권순현 권순호 권순홍 권순화 권슬기 권승연 권승용 권승준 권승중 권승혁권승현 권승희 권시라 권시현 권신애 권신우 권신주 권아나 권아란 권아름 권아영 권아진 권아현 권애경 권애리 권애영 권양숙 권양희 권언중 권연미 권연옥 권연우 권연주 권연준 권연화 권연희 권영 권영갑 권영경 권영금 권영기 권영란 권영묵 권영미 권영민 권영배 권영삼 권영수 권영숙 권영순 권영애 권영옥 권영욱 권영율 권영은 권영인 권영일 권영임 권영장 권영재 권영종 권영주 권영준 권영지 권영진 권영채 권영철 권영학 권영혜 권영호 권영화 권영희 권예람 권예례 권예빈 권예원 권예은 권예준 권예지 권예진 권오경 권오규 권오균 권오대 권오돈 권오룡 권오미 권오민 권오빈 권오상 권오석 권오선 권오성 권오순 권오승 권오용 권오운 권오윤 권오정 권오준 권오진 권오천 권오표 권오한 권오향 권오현 권오희 권옥신 권옥자 권옥희 권용각 권용국 권용규 권용균 권용근 권용덕 권용란 권용민 권용범 권용삼 권용선 권용성 권용수 권용연 권용엽 권용인 권용재 권용주 권용준 권용하 권용학 권용한 권용현 권용호 권용희 권우리 권우재 권우주 권우진 권우찬 권운영 권운희 권원경 권원기 권원병 권원빈 권원진 권유경 권유미 권유민 권유빈 권유선 권유성 권유정 권유주 권유진 권윤경 권윤서 권윤영 권윤정 권윤제 권윤현 권윤혜 권윤희 권율미 권율아 권율재 권은경 권은녀 권은미 권은서 권은숙 권은아 권은애 권은영 권은자 권은재 권은정 권은주 권은준 권은진 권은혜 권은화 권은희 권의창 권이나 권이레 권이정 권이준 권이지 권이현 권인걸 권인규 권인한 권일석 권일선 권일용 권일혁 권일호 권재덕 권재민 권재숙 권재우 권재웅 권재학 권재홍 권재환 권재훈 권재희 권정 권정근 권정기 권정나 권정남 권정미 권정민 권정배 권정복 권정빈 권정선 권정수 권정숙 권정순 권정식 권정아 권정언 권정옥 권정윤 권정은 권정의 권정인 권정일 권정임 권정주 권정찬 권정현 권정협 권정혜 권정화 권정훈 권정희 권종규 권종근 권종미 권좌헌 권주경 권주광 권주리 권주아 권주영 권주현 권주희 권준수 권준영 권준오 권준혁 권준현 권준호 권중근 권중헌 권중혁 권지선 권지수 권지연 권지영 권지예 권지우 권지웅 권지원 권지윤 권지은 권지현 권지혜 권지환 권지희 권진경 권진송 권진숙 권진슬 권진아 권진영 권진우권진웅 권진하 권진혁 권진희 권찬휘 권창순 권창현 권채원 권초롱 권충희 권태균 권태삼 권태석 권태승 권태완 권태우 권태원 권태인 권태정 권태준 권태현 권태형 권태호 권태환 권태훈 권택홍 권필성 권필수 권하린 권하은 권하정 권하진 권하형 권한나 권한슬 권한아름 권한철 권해숙 권해영 권해정 권해준 권해지 권향란 권헌우 권혁 권혁경 권혁규 권혁기 권혁도권혁동 권혁래 권혁문 권혁민 권혁범 권혁수 권혁영 권혁우 권혁인 권혁재 권혁정 권혁주 권혁준 권혁중 권혁진 권혁천 권혁현 권현겸 권현경 권현길 권현미 권현민 권현수 권현숙 권현아 권현오 권현옥 권현욱 권현정 권현조 권현준 권현지 권현직 권현진 권현철 권현희 권협 권형구 권형남 권형달 권형도 권형신 권형주 권혜경 권혜란 권혜련 권혜리 권혜림 권혜민 권혜숙 권혜영 권혜은 권혜인 권혜자 권혜정 권혜주 권혜진 권호남 권호성 권홍 권홍구 권홍우 권화영 권화중 권황주 권황중 권회섭 권효 권효선 권효신 권효심 권효은 권효정 권효진 권훈 권희경 권희라 권희선 권희숙 권희순 권희연 권희영 권희원 권희정 권희제 권희준 권희진 권희찬....

펀딩의 방법은 책 구입 시 버튼 하나로 가능하다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펀딩은 책을 만들 수 있게 나무를 내어 준 숲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펀딩에 성공하면 경북 봉화군 춘양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안에 멸종위기 나무들을 지키는 '문장의 숲'이 조성이 된다고 한다. 펀딩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초대된 100명과 함께 나무를 심고, 나무마다 현판에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름과 책 속 문장을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조성된 숲은 멸종위기 나무들과 함께 나무에 걸린 책 속 문장을 함께 음미하며 산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숲을 지키는 운동의 일환으로 '숲 에디션'을 출간해 판매한다고 한다. 숲 에디션은 재생지를 사용해 종이의 소비도 줄이고 합성 본드의 양을 최소화하는 등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제작한다고 한다. 이는 곧 코로나 사태,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만큼 자연을 생각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

〈글 권오철 기자〉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2020년 정기총회 이후 미납된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 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